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성체성사를 거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술렁거리는 군중들에게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천명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오래전에 이 빵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애를 썼던 때가 기억납니다. 1989년 10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모시고 서울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거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룩한 이 행사를 위해 각 본당에서는 내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신수동 본당에 부임한 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봄 사순절에 100명씩 세 차례에 걸쳐 정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1박 2일 피정을 계획하였고, 거기에 제가 해야 할 강의를 매번 3시간씩 넣었습니다. 열정에 가득 찬 젊은 본당 신부였던 저는 이 강의를 위해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 나갔는데, 피정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힘은 넘쳤는데 내적인 지식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

다 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유혹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꿈을 꿔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높이 오르는 계단이 있어 오르다 보니 그 계단은 구름 속을 뚫고 지나 갑니다. 계단 맨 위에 오른 저는 구름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보이는 구름 속에서 까만 점들이 무수히 나타나더니 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둥그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이 구름 속에 살짝 숨더니 그 원 안에서 아름다운 붉은 빛이 짝 비추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 성체다, 성체다!” 하고 외쳤습니다. 꿈을 깬 저는 뭐가 된 지 모르지만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또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면 그 꿈을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힘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고진감래 끝에 피정은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분별이 옳다면, 그 안에는 늘 희망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희망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본능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잊지 맙시다.



논현2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17

구로1동성당 논현2동성당 서초3동성당



논현2동성당(구 논현2동성당, 학동성당)은 1993년 10월 논현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교구의 교회 분할 정책에 따라 논현2동성당은 논현2동 전 지역, 신사동 일부, 그리고 청담동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인구 22,607명, 신자수 1,612명) 탄생되었습니다. 1993년 본당 부지의 공터에서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1994년 12월에는 고대하던 조립식 패널 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교구 정책에 의해 한양아파트 단지 일대(1,453명)의 새 교구가 전입되었습니다. 2004년 5월 새 성전 착공 미사를 봉헌 했고, 2006년 10월 새 성전 봉헌 미사를 드렸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